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 18,19-20)



제1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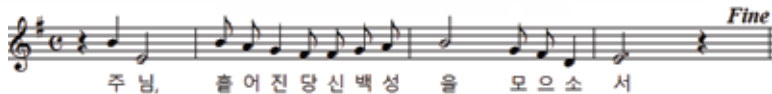
신명 30,1-5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화답송

예레 31,10.11-12ㄱ.13ㄷㄹ-14 (© 10ㄷ 참조)

◎ 주님, 흩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



○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 지켜 주시리라.” ◎

○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 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

○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사제들에게는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가득 채워 주리라. ◎

제2독서

에페 4,29-5,2

〈서로 용서하십시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빛,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갈라지지 않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8,19ㄴ-22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성가안내

- 입당성가: [44] 평화를 주옵소서
- 봉헌성가: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 성체성가: [156] 한 말씀만 하소서
- 파견성가: [6] 찬미 노래 부르며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178] 성체 앞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¹⁹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²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²¹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²²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In truth I tell you once again, if two of you on earth agree to ask anything at all, it will be granted to you by my Father in heaven.

For where two or three meet in my name, I am there among them.’

Then Peter went up to him and said, ‘Lord, how often must I forgive my brother if he wrongs me? As often as seven times?’

Jesus answered, ‘Not seven, I tell you, but seventy-seven times.

묵상

한 가족이 흩어져 서로 만나지 못하고 생사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같은 민족 간의 분열과 전쟁은 수없이 많은 가족들을 이처럼 흩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6·25전쟁이 끝난 지도 60년을 훨씬 넘어, 이산가족의 슬픔을 느끼는 세대도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긴 세월이 흘러 더 두려운 것은 오히려 이런 분단의 상황이 지속되고 고착화되어, 민족 분열의 고통도, 이산의 슬픔도 느끼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감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남북 갈등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도 수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서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을 넘어, 이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과 부족한 일자리로 말미암아 세대 갈등까지 고착화되는 듯합니다. 같은 민족,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정신보다는 모두 자신의 자리를 찾는 데 급급한 것 같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에서 일치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바로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미래를 위해 새로운 방향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 갈릴래아 호수에 인접한 벳사이다 출신으로 본이름은 시몬이다. 동생 안드레아와 함께 어부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이름을 베드로(반석)로 바꾸시고, 그를 사도단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복음서에 소개되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소박하고 단순하다. 예수님을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이시라고 고백하여 칭찬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수난을 반대하다가 심한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

로마 교회의 첫 주교로서 첫 번째 교황이기도 한 베드로 사도는 67년 무렵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

바오로 사도는 열두 제자와는 달리, 비교적 늦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열성적으로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서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들이 사는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 그 공동체들에 보낸 많은 서간이 오늘날 ‘성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67년 무렵 로마에서 참수되었다.

참회의 상징 성 베드로의 눈물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예언을 그대로 실행한 베드로는 사도 중의 으뜸사도이자 교회의 반석이다. 우피지 미술관의 엘 그레코(El Greco Domenikos Theotokopoulos, 1541~1614)의 '성 베드로의 눈물 The Tears of St. Peter'은 특별 전시관의 콘티니 보나코지 컬렉션(Contini Bonacossi Collection)으로, 관람객은 최대 15명만 입장을 허용하는 사전 예약과 미술관이 선정한 가이드 동반 투어로 감상할 수 있다. 엘 그레코는 이 주제로 16점을 남겼는데 6점만이 그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세계 곳곳에 산재한다. 그림이 탄생한 스페인의 톨레도는 이교도의 잦은 침입에도 가톨릭을 수호한 주요 요새로, 열정적 신앙은 국가의 정신적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가 우상 숭배로 간주해 공격한 성모 마리아와 성인 공경을 비롯한 가톨릭 고유의 전승을 수백 점의 반종교개혁적 미술을 제작해 교회의 정통성을 주장했다.

엘 그레코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 처형의 역사적 궤적에 동행한 제자의 눈물을 반복 재생해 교회를 지지했다. 그는 중세 회화에서 사용한 상징적 도상학적 오브제인 하느님이 맡긴 천국의 열쇠를 화면 중앙에 배치해 주체가 베드로임을 분명하게 명시한다. 여명의 빛이 흘러드는 하늘을 향해 치켜 든 베드로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다. 흰 턱수염으로 덮인 화가 특유의 길쭉한 얼굴과 역동적 근육의 완강한 팔로 온몸이 떨리도록 힘을 주어 깎지 깬 두 손은 하느님의 용서를 청원하는 간절한 모습이다. 강한 권위가 자연스레 우러나온 자세에서 표명되는 결연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형언할 수 없는 죄스러움과 무기력한 베드로의 인간적 한계는 여실히 드러난다. 관람객은 정확한 인체 묘사와 드로잉으로 명암을 교묘하게 대비해 빛과 어둠이 조성하는 극대화된 화면 속,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의 인간적 모습에 몰입한다.

베드로의 암울한 심적 고립을 부각시키는 배경의 어두운 나무기둥 뒤로 빛의 공간에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인류 기적의 순간이 전개된다. 그리스도의 무덤에 나타난 천사는 상처 치료 약병을 든 막달레나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처형과 매장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돌아선다. 전체의 1/3을 할애한 배경 화면의 빈 공간은 부활의 상징으로, 죄인 막달레나의 회개와 베드로의 눈물은 죄의 참회와 선행으로 구원되는 단단한 연결고리이다. 능숙한 대가는 회화의 중의적 표현이나 복선 혹은 모호함을 배제한 채 길게 늘린 인체와 강렬한 색상의 독창적 화법으로 그림을 각인시킨다. 세련되고 기품있는 화면은 부연설명이나 사실적 분석, 비유가 불필요한 시각언어로서 직접적이고 감동적인 텍스트를 제공한다. 제목을 확인하고 그림으로 향한 관람객의 시선에는 통렬한 인간적 감정을 호소하는 첫 번째 교황의 눈물에 전이된다.



<성 베드로의 눈물> 17C 전후, 175 cm x 126 cm, 유채화

베드로의 눈물은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한 죄인의 눈물이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주님을 위한 눈물이다. 동시에 당대 교회가 처한 한탄스러운 상황의 눈물이며 빈 무덤으로 증명된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을 향한 희망의 눈물이다. 그리스 태생의 영원한 이방인 엘 그레코의 예술은, 유대교 이슬람 가톨릭이 공존하는 관용과 융합의 톨레랑스(Tolérance) 지대 톨레도에서 정치적 목적도 종교적 이상도 인간을 향한, 인간을 위한 곳에서 만개했다. 그의 종교적 확신과 절실함으로 탄생한 예술은 신앙과 일치한 인간의 심성을 직관적 예술혼으로 그려내 바로크 성화의 독보적인 존재로 시대를 넘어 감동을 준다.

관람객은 초자연적인 영성이 짙게 배어든 성인의 모습에 후회하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향한 화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의 숙명과 죄의 진실한 참회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구한다.

<이순희 아네스>

하상주보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가톨릭 교회·성경 상식을 연재합니다. 연재 내용은 “예비신자 공금증 105가지” 〈줄리아 크노프 글, 롤프 분제 그림, 조규홍 옮김, 가톨릭출판사〉에서 발췌되며, 매 주일 미사 후 백인현 주임 신부님과 성원경 보좌 신부님께서 알기 쉽게 해설해 주십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Q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아실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은 기도드릴 때마다 하느님을 ‘아빠 αββα!’ 라고 부르셨다. 이 말은 ‘사랑하는 아버지’ 라는 뜻으로 아버지를 아주 다정하게 부르는 호칭이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과 모든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었다는 뜻일 것이다.

예수님은 때때로 혼자 산에 올라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으려고 애쓰셨고, 그때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셨다. 분명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은 항상 우아한 모습으로 기도하지는 않으셨다. 땀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기도하시거나 때로는 크나큰 두려움에 휩싸여 하느님 아버지께 큰 소리로 어찌하여 자신을 버리시냐고 부르짖기도 하셨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이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확실히 믿으셨다.

예수님은 여러 방법으로 기도하셨다. 시편의 찬미 기도나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문도 외우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드리거나 축제를 지내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누구나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또한 특별한 형식을 갖춰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다. 무엇보다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기쁘든 슬프든 진실한 마음을 담은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하느님이 그들을 항상 지켜 주시고, 그들 또한 하느님을 예수님처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 (마태 6,5-15)를 알려 주셨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주님의 기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만드시 이루려 하신 소망이 압축되어 있다. 그러니 자주 바치면 좋을 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 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험뜯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 주소서.
-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겨레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 온 겨레가 주님을 믿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평화의 모후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며,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The Last day of the SPC Sunday School June 18th

Thanking Sunday School teachers

CCD and CYO teachers were appreciated by PTO on June 18th. PTO showed thanks to the teachers with warm breakfast, flowers and small gifts.



“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Father Seong, all the teachers and adult leaders who have worked hard for the Sunday School students during the past school year.

The youth ministry's mission and program is a huge success due to your enthusiasm and tireless efforts. We pray that you will always remain in the Lord's blessings.

Thank you.

- PTO, Michelle, Maria Lim

”

Altar servers Graduation

The past Sunday, June 18th, 5 of the 10th grade servers graduated from the Altar Server Program. This year graduates were Derek Kim, Jason Pak, Kevin Kim, Paul Rhee and Angie Yong.



Yong Woo Kwon

Five Altar servers who graduate today have contributed a lot to the parish to help priest celebrate Mass and other liturgies. On behalf of St. Paul Chung Parish, I would like to thank them for all the hard work. Thank you for your service and best of luck in your future endeavors!



Derek Kim

Before I joined Altar Service in my 5th grade, I had never experienced a deeper connection to God and the church. There were two things that had never changed from the first Mass that I attended as a Main to my last one as a Cross. They were faith and happiness. Knowing that I am doing this service for God, I have always experienced a sense of happiness and this happiness eventually led to the strengthening of my faith. As I became the president in the final year of my Altar Service, I have taken a leadership more seriously, which shaped me into a better person who is willing to listen to everyone. As a final remark, I encourage anyone who might sincerely wish to serve the God to join this society. I know this experience will bring happiness and faith to you.

SPC Little Saints News

• On June 18th, our two proud CYO students, Won Lee and Hoon Lee received 'Outstanding Christian service award' from Fiat Foundation.



• Congratulations to the winners of Knight of Columbus' Essay and Drawing Contest Anna Lee, Heejo Lee, Rachel Chae, Eric Whang, Jalian Kim, Jeffery Pak, Danielle Kim, Mary K, Kang and 14 others.



1. Jr. High Work Campers & parents Meeting

- When : Jul 2(Sun) 1pm
- Where : Hasang building #109

2. CCD Summer Camp (Aug. 11 - Aug. 13)

- More information is coming soon



어르신들 모시고 감사의 마음 효도 한마당

Father's Day였던 지난 18일(일) 본당 베드로회(회장 황창희 프란치스코)가 주관한 “효도 한마당” 행사가 친교실에서 열렸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는 안나회, 하상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빌어주며 행사를 기획한 베드로회 및 봉사에 참여한 단체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황 로사 자매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시작된 1부에서는 효녀, 효부상 시상과 함께 90세가 넘는 안나회, 하상회원들을 위한 선물 증정이 있었다. 또 생활 성가팀을 추가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점심 식사와 함께 시작된 2부에서는 5,6월 생일을 맞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 참석한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레지오 단원인 조진미 안젤라, 유성희 사비나 자매의 청아한 판소리는 성당의 숨은 보배를 찾은 듯하였고, 박옥희 소화 테레사 자매 외 5명의 안나회원들은 돌아온 탕자를 촌극으로 준비하여 행사의 재미를 한층 더하였다. 하상회 토끼팀은 기타, 연주와 노래로 나이를 잊은 듯한 멋진 공연을 보여주었으며 김문자 마리아, 이수경 수산나 자매의 아리랑 고전 무용 또한 더할 나위없이 아름다웠다. 또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열심히 준비한 노 헬렌, 김요안 비안네 외 회원들 또한 멋진 화음으로 4중창을 들려주었다.

장가자랑 1등상은 안나회 촌극 ‘돌아온 탕자’를 공연한 박옥희 소화 테레사 외 5명의 자매들에게 주어졌다.

베드로회의 황창희 회장은 행사를 위해 3개월 동안 외식부, 연예부 그리고 진행부로 팀을 만들어 준비했다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본당과 봉사에 참여한 단체 및 교우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안나회, 하상회원들을 비롯해 참석한 교우들은 너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며 행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고생한 베드로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 성인 견진예식

- 견진성사 예식: 6월 25일(일) 오후 2시
- 장소: Cathedral of St. Thomas More (알링톤 주교좌 성당)
- 문의: 김우기 교육부장(703)395-1305

2 유아세례

- 일시: 6월 25일(일) 오후 3시, 성당

3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6월 25일(일) 오전 11:40(하상관 B-4,5)

4 K of C 정기모임

- 일시: 6월 25일(일) 오전 11:30(A-1,2)

5 CCD 야외미사 및 소풍

- 일시: 6월 25일(일)
- 장소: Frying Pan Farm Park Visitor Center, Herndon
- 문의: 윤정보일 교감 (703) 371-3589

6 CYO 여름 캠프 신청

- CYO 여름 캠프 신청을 미사(8시, 10시, 11:40) 후 친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캠프 일정: 7월 27일(금) - 7월 30일(일)
- 대상: 9학년-12학년
- 장소: Prince William Campsite
- 문의: 김다니엘 (703)795-1558

7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첫영성체 받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 신청: 7월 2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권용우 스테파노(571) 244-0333

8 성모임원회의

- 일시: 7월 2일(일) 오후 1시(B-1)

9 청소년 사도회 월례회의

- 일시: 7월 2일(일) 오후 1시(B-2)

10 구역임원 파정

- 일시: 7월 8일(토) 오후 5시 - 오후 10시(B-1,2)
- 대상: 구역 봉사자(구역장, 반장)
- 7월 봉사자 교육 모임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강세원 부회장(703)489-3938

11 성 정 바오로 성당 음악회(연합 성가대원 모집)

- 기존 성가대원 및 일반 신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습 시간: 6월 30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미사 후 연습
- 음악회 일시: 9월 23일(토) 저녁 미사 후
- 문의: 노혜란 (248) 494-6060

* 알립니다 *

10시 미사 중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아실 뒷편의 노약자석에 계시면 성체분배자가 유아실로 성체를 모시고 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 (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연중 제12주간 : 레위 1-4, 마태 28장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6월 29일 (목) 오후 5:00-6:00
6월 30일 (금) 오후 8:00-9:00
7월 2일 (일) 오전 6:00-7:00

- 가톨릭 종합 뉴스
- PBC 창사 29주년 특집 : 서울 대교구장직에서 은퇴한 후 해화동 주교관에 살고 있는 정진석 추기경. 그의 일생과 신앙을 되돌아본다.

교황님의 6월 기도 지향

일반 : 국가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이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는 무기 거래를 종식시키는 데에 흔들림 없이 힘쓰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6월 18일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주일헌금 \$ 7,834.00
교무금 \$ 12,390.00
교무금(신용카드) \$ 2,060.00
특별헌금 \$ 134.65
2차 헌금 \$ 0.00
합계 \$ 22,418.65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국(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김영식(토마스)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또), 손병기(펠릭스), 윤백찬(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셀(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Peru Pucallpa Outreach Mission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VA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해외 봉사단

오늘은 제6기 페루(뿌칼파) 선교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25일(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꾸리아 월례모임(오전 11:40, 하상관 #4), CCD, PTA 야외미사, K of C(오전 11:30, A-1,2), 성인견진예식(오후 2시, St. Thomas More 주교좌 성당), 비엔나 구역 공동체 모임(오후 6시, 나눔터)
26일(월)	연중 제12주간	아침미사(오전 6:00, 성당)
27일(화)	연중 제12주간	성령기도회(오후 8시, 도서관)
28일(수)	성 이레네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성소후원회 모임(오후 7:30, B-1,2)
29일(목)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아침미사(오전 6:00, 성당)
30일(금)	연중 제12주간	저녁미사(오후 7:30, 성당)
7월1일(토)	연중 제12주간	아침미사(오전 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파티마 첫토요 신심(오후 6:15, 친교실)
2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8:00, 친교실, 하상관),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사도회 월례회의(오후 1시, B-2)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칼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토)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마사지와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용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체넬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마태오 홍 종합보험 메디케어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파나)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옥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중미반점 애난데일 예촌 옆 임형석(가브리엘) 703-658-203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 703-801-3924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광고 접수중! 주보를 통해 교우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홍보하세요~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 저녁 6시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주)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톨릭기 운영 / 매주 화, 금
-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08:00 AM
	10:00 AM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